

서포인의 ‘좌측담장’



수치심을 느낀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중에 하나인 아이폰은 원래 카메라 효과음이라는 게 없다. 카메라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면 ‘찰칵’ 소리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기술적 옵션인데, 이는 일명 ‘몰래 카메라’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만큼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이나 불순한 목적을 가진 촬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말일 텐데, 더 쓸쓸한 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불법 촬영과 범죄가 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몰래 남의 사진을 찍는 일은 예외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된다. 하물며 화장실·탈의실 장면이나 성행위 모습을 몰래 담는 것은 심각한 파렴치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몇몇 절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깔깔대고 소비하고 말 일은 아니란 말이다. 이 범죄의 피의자 대다수는 남성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그들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도덕 결함에 매몰되어 촬영물을 공유해 왔다. ‘\* \* \* 양 비디오’를 함께 보며 부지불식간에 지워 버렸던 죄의식이 기술의 발전을 만나 도덕적 붕괴를 일으킨 것이다. 리벤지포르노에 ‘국산’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해외에서 촬영된 불법 영상의 피해자에게 ‘원정녀’ 딱지를 붙이는 (일부?)남성에게 21세기의 평균적 도덕률을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먼저 그

것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인간 이하의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놀랍게도 야구를 보면서도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다. 오랜만에 정자세로 앉아 보는 야구 중계, 심지어 더욱 오랜만에 보는 투수전, 게임은 이닝이 쌓일수록 박빙 양상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카메라가 자꾸만 그라운드나 더그아웃이 아닌 관중석을 잡는다. 최근 기록이나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와야 할 타이밍에 여성을 비춘다. 선수의 환호나 좌절의 표정을 보여 주어야 할 순간에 일어서서 박수치는 아가 비취 준 여성을 다시 쫓는다. 그 여성은 아마도 카메라맨이나 PD가 보기에 젊고 예뻐할 것이다.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고, 몸에 딱 붙거나 약간의 노출이 있으면 더 좋다. 중간중간에 일어나 응원에 맞춰 울음이라도 해 준다면 금상첨화다.

익숙한 풍경이다. 흥겨운 응원을 위해서는 미니스커트와 ‘탑’을 입은 치어리더가 필요하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탑’을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에 ‘프로야구 치어리더’가 뜬다. 대체 왜?) 경기 중 경기장에 배트를 수거하는 일 또한 불편한 복장을 한 ‘베트걸’의 몫이다. 카메라는 귀신처럼 ‘젊고 예쁜’ 여성을 찾아 허락도 없이 텔레비전 화면에 송출한다. 경기가 끝나면 정장을 입은 해설가 두 명과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 아나운서 한 명이 진행하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이 시작된다. 아나운서는 출력된 대본으로 허벅지를 가리기 바쁘지만, 어째서인지 의자는 높고, 카메라는 낮다.

야구팬은 이제 야구장을 둘러싼 일련의 성적 대상화에 부당함과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일부(?)팬들은 중계 화면을 높고하는 ‘OO녀’라고 이름 붙이고 평가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한 주관적이고 저열한 판단이 이뤄지고 그것은 맛글이라는 이름의 배설물이 된다. 이렇게 많으면 수십만 명이 보는 야구 중계가 거대한 불법 촬영의 수단이 되고, 놀이터가 되는 것이다. 이 끔찍한 놀이는 결코 야구가 아니다. 고척에서, 시작에서, 잠실에서 중계 카메라가 ‘젊은 여성’을 찾는 이유가 그 화면을 보는 남성 팬을 위함이라면 남성 모두가 해당 방송사에 수치심을 느낄 일이다. 아무리 수심 깊은 수치심이라도, ‘언제 찍힐지 모르느’ 공포심에 비하면 가뭄 속 계곡물에 불과할 터지만.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도 엄중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최근 각 구단은 원자자와 저작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응원 등에 있어 음악을 쓰고 있지 않다. 팬의 입장에서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에도 이처럼 엄격한 기

준이 적용되는데, 사람의 얼굴을 방송의 재료로 씌에 있어 이토록 게으르고 뻔뻔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경기장의 분위기를 알리기 위해 관중석을 이따금 노출할 수는 있지만,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의미 없이 송출하는 것은 명백한 전파 낭비 일 것이다.

야구장에 여성 팬이 많아졌다고 한다. 여성 팬 앞에서 어설플 지식으로 야구를 설명한다고 우쭐대다가는 ‘팬스플레인’(남자들이 무작정 여자들에게 아는 척 설명을 늘어놓는 행동)이라 공격당하기 십상이다. 당연한 일이다. 세상의 거의 절반은 여성이고, 여성과 남성이 야구를 즐기는 방식과 이유, 열정은 결코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여성 모두는 남성에게 예뻐하게 보이려고 야구장에 온 것이 아니다. 야구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그렇다.

다시 수치심의 계곡물에 돌아오자. 시원한 계곡물은 사람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도 한다. 그걸 야구 중계 화면과 불법 촬영물이라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두 영상은 동일인의 모니터에서 재생되었을 수 있다.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야구 문화를 바꾸고, 불법 촬영물은 안 보면 된다. 공포와 수치에 비해 아주 쉬운 해결책 아닌가. <시인>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여성 스트레스의 원흉 ‘유방암’



김유석 조선대병원 외과 교수

두렵지 않은 암이 있을까라는 특히 여성들에게 유방암은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가슴이 조금만 아파도, 약간의 멍울이 있는 듯한 느낌만 들어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여성에게 유방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겉으로 드러난 여성성과 아름다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리 전후로 가슴에 이상 변화가 생기든 경우는 대개 자연스런 현상임에도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으며, 심지어 ‘귀지의 상태가 쫓아 있으면 유방암을 의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정보까지 들어오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여성에게 유방암은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다.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유방암 역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다. 그 이유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 확률이 높으며, 유방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는 유방 보존 수술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방을 절제하더라도 복원 수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먼저 유방 자가 검진이다. 폐경 전 여성은 매달 월경이 끝난 후 약 5~7일 뒤에, 폐경 후 여성은 매달 1일에 유방과 겨드랑이를 만져보고 젖꼭지를 짜보아 만져지는 멍울이 있거나 젖꼭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의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즉시 유방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처음 유방 자가 검진을 시작할 때에는 정상적인 유방 조직과 멍울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기적인 시행으로 자신의 정상 유방에 익숙해지면 새롭게 생기는 멍울을 조기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는 유방 정기 진찰이다. 이 방법은 일년에 한번 자기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아무런 증세가 없어도 유방 전문의를 찾아 진찰을 받는 방법을 말한다. 실제로 유방암에 의해 생긴 멍울이 있어도 일반 여성들은 그것이 암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유방에 있던 딱딱한 멍울인지 구별하기 힘든 때가 많은데, 이때 경험 많은 유방 전문의라면 1cm 정도 크기의 유방암은 촉진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다.

셋째는 유방 촬영술이다. 한 개의 유방암 세포가 자라서 손으로 느껴지려면 적어도 1cm 크기는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론적으로 평균 약 4~7년의 기간이 걸린다. 이러한 잠복 기간 중에는 실제로는 유방에 미세한 암이 있어도 손으로는 만져지지 않지만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면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져지지는 않으면서 유방 촬영술 혹은 유방 초음파에서만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진상에 작은 덩어리가 보이거나, 유방 조직이 변형되어 있거나 미세 석회화 등이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 촬영술 시행 시 통증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방 촬영술은 조기 유방암 발견에 필수적이며 특히 유방암에 동반되는 석회화를 발견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유방 촬영술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리가 끝난 후부터 배란 전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유방 초음파는 덩어리를 발견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만, 미세 석회화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방 사진 촬영을 반드시 시행해 감별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방암의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같은 병기를 시기별로 비교해 볼 때도 과거에 비해 완치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이는 많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기에 발견하는 빈도가 높아진 데 큰 이유가 있다. 건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고



이승미 한국수목해의순회전시 큐레이터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 예술의 특징은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아시아 대부분이 농경에 기반한 문화를 일구었고 문자와 종교를 공유한 데에 기인한다. 농경을 기반으로 한 문화 교류는 아시아인의 의식주에 유사한 풍속을 만들었으며, 한자에 기반한 문자는 지식 기반의 유사성을 동반했다. 불교와 유교의 전래는 수많은 지역 토착신앙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사상과 풍속에 큰 영향을 미쳐 아시아 전역이 유사한 세계관을 갖도록 하였다. 아시아 각국이 수천 년 독자적인 역사와 현저하게 다른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문화적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이유이다. 전남도는 한반도의 서남에 위치해 과

아시아의 꿈 ‘수묵, 동방수묵지몽(東方水墨之夢)’

거 중국과 한반도 항로를 잇는 중간거점으로 동아시아 해양 문명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완도의 청해진이나 강진에 위치한 청자 도요지는 남도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적극적인 국제 교역의 중심으로서 활발하고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묵(水墨)은 아시아를 관통하는 문화적 공용어인 동시에 대표적인 예술과 지식의 상징이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조선의 선비와 화인들이 1500년 전 당송시대 지식인 예술가의 그림을 임모하면서 필적을 익히는 일은 당연한 수학 과정으로 여겨지곤 하였다.

그렇게 1500여 년 이상 긴 호흡을 이어왔던 동아시아 수묵은 근대 이후 아시아 근현대 역사와 다르지 않은 수모와 부침을 겪어왔다. 근대 열강은 종교와 학문, 신식 교육을 앞세워 아시아 전역을 문화적으로 종속하고 과학 지식이 문화의 우위에 작용해 아시아 전통문화와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거나 서구 문화와 더불어 일반화 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수묵은 봉건 시대 지식인들의 고답적인 유희 정도로 여겨져 매우

급속하게 단절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더욱 철저히 과거 봉건 시대와 단절되어 수묵은 철저히 배척당해야할 과거로 인식되기도 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수묵은 오직 소수 예술가들에게만 의미 있는 예술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100년 사이 산업과 경제 문화에서 놀랍도록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의 그늘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진 전통문화 또한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공공육에서 한자가 사라지고 불과 30여 년 사이 수묵과 서예는 대중과 거의 유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문화의 유입 경로였던 전남은 여전히 전통문화와 예술의 보고로서, ‘예향’으로 불려왔으며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요인과 가능성이 건재하다. 전남에서 국제적인 수묵비엔날레를 개최한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부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남에 깊이 뿌리를 둔 수묵예술이 아시아를 관통하는 가치로서 발전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시아 미술의 세계적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남도에서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2017 전남국제수묵 프레비엔날레’를 개최, 수묵의 동시대 예술로서의 견제함과 가능성을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2018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의 출발을 위하여 상하이 홍콩 홍보 전시를 준비하였다.

‘수묵水墨, 동방수묵지몽東方水墨之夢’ 전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책무 또한 막중하다. ‘수묵, 동방수묵지몽’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는 총 30명이다. 지난해 2017 전남국제수묵 프레비엔날레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예술가 중 오랜 시간 수묵의 부침을 온몸으로 견디어 내면의 깊이와 전통수묵에 충실한 은둔자와도 같은 원로 예술가부터 전통에 충실하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예술가, 그리고 창의적인 시각과 힘찬 열정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예술의 현장으로 기꺼이 뛰어든 모든 준비가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이다.

수묵이 아시아를 하나로 잇는 공통의 문화이자 예술 언어로 다시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 ‘수묵水墨, 동방수묵지몽 東方水墨之夢’이다.

社說

자위권발동 5시간 전 이미 실탄 지급 마쳤다

5·18의 최대 의의으로 남아 있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 9(軍) 문건이 새롭게 발견됐다. 계엄사령부가 발포 5시간 전에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예하 부대에 실탄을 분배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김희승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최근 ‘육군기갑학교 부대서’에서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전투부과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에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고 그에 따라 실탄이 배급됐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기갑학교는 광주 진압을 총괄 지휘한 전교사에 소속된 부대로 3·7·11공수여단, 20사단, 31사단이 포함돼 있었다.

“진도개”는 3단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적의 침투·도발 상황이 확실할 때 발령되는 최고 경계 태세(전투 태세)로 탄약이 지급된다.

문건에 따르면 실제 광주에 투입된 전교사 소속 부대는 21일 오전 8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자 오전 11시까지

전 부대원에게 실탄을 지급했다. 육군기갑학교는 M-16 개인단 90발, 권총 개인단 14발, 30 LMG(30구경 경기관총) 화기당 250발, 50 MG(50구경 기관총) 화기당 100발의 탄약을 분배했다. 같은 시각 광주교도소를 경비하고 있던 31사단에도 비슷한 분량의 실탄이 분배됐다.

80년 5월 비극의 도화선은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자행된 군의 집단 발포였다.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참혹하게 유린했지만 발포 명령자는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신군부가 ‘발포 명령’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강변해 왔기 때문이다.

새로 발견된 문건은 시위가 격해져 우발적으로 발포가 이뤄졌다는 신군부의 논리를 뒤집는 증거다. ‘진도개 하나’ 발령과 동시에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한 것은 발포 준비를 미리 끝낸 것이다. 명령 전달 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아내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교도소 습격설’도 신군부의 조작이었다

시민군의 광주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그동안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설’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3공수여단에 앞서 광주교도소를 지켰던 31사단이 남긴 기록이 처음 공개되면서 신군부가 ‘시민군 교도소 습격설’을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희승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는 그제 ‘시민군의 습격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31사단 전투상보 작전요도를 광주일보에 공개했다. 작전요도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16회 난동자와 조우했지만 수색중대장의 설득·권유로 자진 철수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3공수여단으로 경비 병력이 교체된 이후 상황이 급변했는데, 지난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계엄군 지휘관들은 5월 21~23일 사흘간 6차례에 걸쳐 폭도들이 교도소를 기습 공격했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번 31사단 기록을 분석한 김 교수는 “이런 사실들이 모두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3공수여단은 누구나 접근하면 무조건 쏘았을 것”이라며 “신군부 입장에서는 광주항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시민들은 5·18에 대한 왜곡과 싸우고 있다. 1980년 당시 신군부에게 도적으로 시중에 유모시엔 유언비어가 도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16회 난동자와 조우했지만 수색중대장의 설득·권유로 자진 철수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기록과 증언뿐이다. 5월항쟁 38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발굴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제 김대중센터역 승강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아버지는 광주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울 말뚝이 귀에 들으며 “5·18 맞춰 일부러 오셨나요?” 조소처럼 물었더니 아빠와 비슷한 나이의 엄마가 답했다. “네. 30년 전쯤 전남대와 망월동 묘역에 들른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오게 됐네요.” 30년 전에는 아마도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저 에

화가 걸린 설치물도 발길을 붙잡는다. 이곳에선 도슨트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던 외국인 일행, 1980년을 생생히 기억할 듯싶은 세 명의 노신사, 그리고 학생 단체 관람객을 만났다. 전시장을 나와 5·18 광장에서는, 서울에서 온 가족을 또 만났다. 기념관 관람을 권한 뒤 상무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옛 상무대에서 열리고 있는 ‘5·18 영창 특별전’은 시민군들이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상무대 영창과 방정 등 23개

오월에 만난 사람

의 방을 전시 공간으로 꾸며 그날의 진실과 아픔을 보여 준다. 하루 16시간 정좌 자세-스물세 개의 방 이야기’에 갔던 터라 방문을 권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일 광주를 떠나기 전에 가볼 참’이라 했다.

마침 이들을 만나기 전에 5·18자유공원(옛 상무대)에서 열리는 ‘5·18 영창 특별

문화전당역에서 내려 5·18민주평화기념관(6월17일까지 개방)을 찾았다. 옛 전남지방경찰청 등 전시장 실내 3개 층을 관통하는 상징조형물이 눈길을 끌었다. 수백 명의 국내외 인물사진이 담긴 ‘5월에 만인의 얼굴이 눈부시다’라는 작품인데, ‘아는 이’의 얼굴이 보여 반가웠다. 도청 앞 분수대 햇빛성화를 재현한 ‘빛의 정거장’, 천정에 수백 컬러의 운동

하루 16시간 정좌 자세-스물세 개의 방 이야기’에 갔던 터라 방문을 권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일 광주를 떠나기 전에 가볼 참’이라 했다.

문화전당역에서 내려 5·18민주평화기념관(6월17일까지 개방)을 찾았다. 옛 전남지방경찰청 등 전시장 실내 3개 층을 관통하는 상징조형물이 눈길을 끌었다. 수백 명의 국내외 인물사진이 담긴 ‘5월에 만인의 얼굴이 눈부시다’라는 작품인데, ‘아는 이’의 얼굴이 보여 반가웠다. 도청 앞 분수대 햇빛성화를 재현한 ‘빛의 정거장’, 천정에 수백 컬러의 운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